나주 혁신도시 9월부터 '콜버스' 달린다

시, 빛가람동 일원 내년 2월까지 시범운행…모바일 앱·전화 호출

도시 내부 순환버스 노선 신설·주차장 확대 등 정주여건 개선 박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 대책이 시행된다.

우선 나주시는 오는 9월부터 승객이 부르면 출발지에 오는 '나주콜 버스'를 빛가람혁신도시(빛가람동)에서 시범 운행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나주콜 버스'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DRT·Demand Responsive Transit)의 하나로 도입된다.

'나주콜 버스'는 빛가람동 일원 7㎢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된다.

승객들은 모바일 앱으로 정해진 시간 없이 버스를 호출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주민을 위해서는 전화상담이 함께 제공된다.

지난달 기준 나주 혁신도시 인구는 3만9402명으로, 조성 초기인 2014년 5월(754명)의 52배 넘는 수준으로 불어났지만, 대중교통 공급이 크게 부족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내부 통행을 위한 '도시 내부 공공형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벤처·스타트업인 ㈜스튜디오 갈릴레이(대표 김현명)를 최종 선정했다. 스튜디오 갈릴레이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확산을 위해 앞으로 6개월간 나주시 빛가람동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벌인다.

'나주콜 버스'(DRT차량)는 정해진 노선 운행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지 않고 승객의 실시간 호출 수요에 맞춰 노선, 시간 등이 탄력적으로 설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승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고 운수사와 자치단체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주시 측은 기대하고 있다.

스튜디오 갈릴레이가 자체 개발한 DRT플랫폼을 통해 사전 모의실험을 한 결과 나주콜 버스 운행 때 승객 평균 대기 시간은 기존 32.2분에서 7.3분으로 77.3%가량 대폭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운행 거리와 운행 비용은 기존 대비 각각 50.3%, 8.5% 감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나주시는 혁신도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빛가람동 상가 밀집 지역에 있는 민간주차타워 2곳(도원주차빌딩·죤프라자)의 주차면 819면을 무상 임차해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이달부터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빛가람동 자동차 등록 대수는 2만여 대로, 나주시 전체 등록 대수(7만여 대)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나주시는 빛가람동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나주시는 민선 8기 대중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승객 편의 중심으로 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있다. 대중교통 전체 노선 개편안으로 '시내버스-마을버스·마을택시를 연결하는 노선 체계 구축', '혁신도시-나주·영산포 급행버스 도입', '간선(광주) 노선 정비', '혁신도시 순환버스 노선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는 전체 노선 개편안에 대한 20개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열고, 이달 중에는 나주교통 보조금 관련 대시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혁신도시 나주콜 버스는 일반 승객은 물론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이자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하는 획기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나주시는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빛가람혁신도시 7㎢ 구간에서 승객이 부르면 찾아오는 '나주콜 버스'를 시범 운행한다. 나주콜 버스 운행 구상도. 〈나주시 제공〉

"고향사랑 기부하면 벌초해 드립니다"

함평군, 기부제 답례품 확대

"고향사랑 기부하면 벌초 해줍니다"

함평군이 기부자 수요를 반영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로 벌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품목을 확대했다.

함평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벌초 대행 서비스, 주택화재 안전꾸러미 등 2개 품목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벌초대행은 함평군 산림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부시 생성된 포인트로 할인권을 받아 벌초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함평에 산소가 있지만 직접 벌초가 어려운 출향 향우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화재 안전 꾸러미는 함평소방서에서 제안한 것으로,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안전 교육이 결합된 서비스 품목이다.

기부자가 함평지역 주소지를 배송지로 선택하면 함평소방서 직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소화기 등 소방 용품을 설치하고 안전 교육도 제공한다.

함평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43개 품목 80종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답례품은 함평사랑상품권(29%), 함평천지한우(13%), 잡곡세트(10%) 순으로 집계됐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과일의 여왕' 강진 체리 본격 출하

강진원 군수, 농가 방문 격려·작물 육성 방안 등 논의

과일의 여왕 체리의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강진원 강진군수가 농가를 찾아 체리 작물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강 군수는 최근 도암면 옥전마을에 있는 체리 생산 농가를 찾아 체리연구회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우량 묘목 공급 대책과 재배 경쟁력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진군은 지난 2017년부터 체리 재배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며 신소득 작물로 키워왔다. 이달 현재 24 농가가 6.4ha 규모 체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가 도암면 옥전마을에 있는 체리 수확 농장을 방문해 농업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농가들은 체리연구회를 결성하고,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강진군이 예산 3억원을 들여 체리 농가 5곳에 재해 예방을 위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한다.

강진산 체리는 수입 체리에 비해 새콤달콤한 맛이 더 강하며 식감도 더 찰진 특징이 있다. 체리연구회는 '좌등금', '홍수봉', '라핀' 등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수확한 체리는 강진지역 로컬푸드 판매점에 출하되고 있다. 이 농가는 0.6ha의 면적에서 500㎏의 체리를 수확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장성군, 경옥고 원료 '지황' 재배 확대

군, 올해 8.4ha 구축…규모화·단지화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장성군이 신소득 약용작물로 떠오르는 '지황' 재배단지를 올해 8.4ha까지 구축한다.

지황은 경옥고의 주원료로 쓰인다.

항암과 불면증 개선, 피로 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꾸준히 소비되면서 국내 지황 재배면적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장성군이 주로 재배할 지황 품종은 '토강'이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우리 품종으로, 생산성이 높고 뿌리썩음병 등 병충해에 강한 장점이 있다.

장성군은 올해 경옥고 주원료인 '지황' 재배단지를 올해 8.4ha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조성한 재배단지 모습. 〈장성군 제공〉

장성군은 안정적으로 지황 생산기반 조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규모화, 단지화를 추진한다.

올해는 8.4ha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황 재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연작 장해, 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황 재배단지 확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재배기술 확립이 필수"라면서 "꾸준한 연구를 바탕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가 신소득 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군 무료 풍진 검사

만 20~49세 여성 대상

담양군이 여성 주민을 대상으로 풍진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발진성 급성 피부 전염병의 하나인 풍진은 림프절 염증을 동반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임신 초기에 풍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태아에 선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가임기 여성이라면 풍진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면 임신 전 풍진 항체 검사를 통해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담양군은 지역에 주소를 둔 만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풍진 검사를 한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담양군 보건소를 찾으면 된다.

이 밖에도 담양군은 가임기 여성과 신혼부부에게 엽산제·철분제 등 영양제와 건강 검진, 난임 부부 시술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임신을 준비할 때부터 출산·양육까지 아기 낳기 좋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